# 북부간선道 위 '콤팩트시티'… 주택+생활SOC 실험

청년 1인가구, 신혼부부 대상 주거·생활SOC·업무시설 갖춰 북부간선도로 일대 4200억 투입 도시기능과 거주공간 더한 구조

서울 북부간선도로 신내IC~중랑IC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거, 여가,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.

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 사)는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일대 약 7만 5000m² 규모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공원,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, 업무·상업시설이 들어선 콤 팩트시티를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. 총 사업비는 약 4200억원으로 추산된다.

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서 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"서울시 에는 대규모로 개발할 토지자원이 고갈 돼 도시 내에서 저밀도로 이용되는 땅 을 찾게됐다"며 "버스차고지로 대표되 는 차고지,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한 유



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조성 후 상상도.

수지, 물을 순환시키는 물재생센터 등 그동안 활용이 저조했던 공간을 콤팩트 시티로 재활용하고자 한다"고 말했다. 콤팩트시티란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합친 도시 공간 구조다.

경춘선 신내역과 신내3지구를 가로 막는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어 인공 대 지를 조성하고 공중보행길로 도로의 남 북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. 신내 IC일 대는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구리-포천고속도 로, 북부간선도로, 서울외곽도로 등 광 역도로망이 형성돼 있어 교통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.

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"대중교 통을 이용하는 1~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되도록 주차장을 사용 하지 않는 입주민을 선정할 계획"이라 며 "공공주택지구 남측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유입되는 교통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차량통행량이 늘어 나면 교통개선대책에 도로확장을 주문



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.

할수있다"고말했다.

/서울시

사업이 시행되는 '신내4 공공주택지 구' 지정 대상지는 신내IC~중랑IC 구 간 상부 2만3481㎡, 북부간선도로와 도 로 남쪽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 창고 부지 3만3519㎡,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1만7675m² 등으로 국공유지 67%. 사유 지 33%다.

김 사장은 "도로 위는 땅값이 제로 (0)다. 도로 위에 데크를 세우는 비용은 평당 1000만원 안팎으로 추산한다"며 "서울시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평

균적으로 1700만~2000만원이 들기 때 문에 인공대지 조성이 더 저렴하다"고 강조했다.

중랑구콤팩트시티에는청년 1인가구 와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 1000호, 체육·보육·문화시설 등 생활 SOC, 녹지 공간, 창업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. 일과 주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도전숙 등 이 건립된다. 경춘선 신내역과 개통 예 정인 6호선 신내역, 면목선 경전철역 등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전망이다.

시는 연내 사업지 총 7만4675m² 부지 를 '신내4 공공주택지구'로 지정할 계 획이다. 공공주택지구는 도시계획위원 회심의, 환경·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심 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 차가 간소화된다. 시는 이달 19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(초안)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한다.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국제현상설 계공모로 설계안을 채택할 계획이다.

/김현정 기자 hjk1@metroseoul.co.kr



#### "곱게 핀 야생화 보고 가세요"

전남 구례군에 소재한 노고단은 1,07m의 높 이로 지리산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천왕봉 (1,915m), 반야봉(1,732m)과 더불어 3대 주 봉으로 불리고 있다. 8월 중엔 원추리, 동자 꽃, 비비추, 패랭이꽃 등 야생화가 만개하여 등반객과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비 경을 연출하고 있다. /전남=봉채영 기자

### 군산시, 日 백색국가 제외 긴급대응 돌입

시청・산업단지내 신고센터 운영

군산시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 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한다.

강임준 군산시장은 5일, 관과소 읍면 동장 등 시 간부 전체가 참석하는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해 일본 정부의 '백색 국가'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.

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, 군

산시 제조업체 중 직접적인 피해가 예 상되는 기업은 약 1.4%인 20여 개 정도 로 대부분 산업기계 • 부품과 화학 및 수 지 등 첨단 소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업 체들로 파악됐다.

이에 시는 시청과 산업단지 내에 피해 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 항을 모니터링하고, 기업 지원 유관기관 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수급 대 응 지원센터와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 여 기업의 피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 획이다. /전북 군산=봉채영 기자 bcy2020@

# 경기도, 농업교류로 한반도 평화정착 모색

### '남북·동북아 농업협력 컨퍼런스' 농업개발 전문가 40명 한자리에

경기도가 최근 '2019 아시아태평양 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'를 성 황리에 개최한데 이어 농업분야 남북교 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.

경기도는 통일농수산사업단,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와 함께 오는 7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'2019 남북 및 동북아 농업협력 국제 컨퍼런스'를 개 최한다.



경기 2청사 전경

이번 컨퍼런스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남북 농업 교류협력사업의 준비 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남한과 북한.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간 소통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.

행사는 한국, 러시아, 중국, 일본 등 국내외 농촌・농업개발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네 차례의 세션토론 을 가질 예정으로, 농업분야 협력 활성 화와 북한 농촌지역의 자립 및 지속 가 능한 종합개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 를 나누게 된다.

도는 이번 컨퍼런스 외에도 국내외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연해주 영 농지원센터, 연해주 내 주요 농업시설 등을 방문, '동북아 농업협력 네트워크 구성'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방침 이다. /경기=김승열 기자 kimsy@

### 익산시-원광제약, 140억 투자계약 체결

산단 활성화・일자리 창출 기대

익산시는 5일 시청에서 원광제약(주) 오성배 회장, 정헌율 익산시장,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 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.

이날 협약에 따라 원광제약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2만6548m² 부지에 140여억원을 투자하고 60여명의 근로 자를 고용할 계획이다.

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. /전남 익산=봉채영 기자

## 서울시, 청년수당사업 참가자 1500명 모집

6개월간 50만원씩 지원

서울시는 하반기에 청년수당 대상자 15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 다. 이를 위해 추경 30억6000만원을 투 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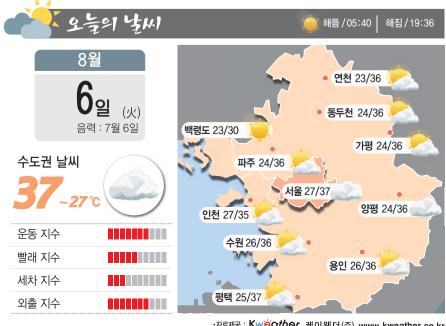
참가 희망자는 7~9일 서울청년포털

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 지원 대 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 ~34세,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이다. 중위소득 150% 미만이어야 한다.

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9월 25일부 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. 매달 50만원 씩 3~6개월간 지원하며, 청년 활력 프 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.

제출 서류는 ▲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▲중고교·대학·대학원 졸업(수료·제적·자퇴) 증명서 1부다. 선 정 결과는 이달 30일 서울청년포털에 게재된다.

지난 4월 진행된 청년수당 신청 때 5162명을 뽑는데 1만4000명이 몰려 2.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시는 덧붙였 /김현정 기자



·자료제공 : Kwoother 케이웨더(주) www.kweather.co.kr